

# '옵트아웃' 선언... 극적인 빅리그 승격

## 데뷔전 결승 '솔로포' ... 반전 드라마 주인공 '황재균'

메이저리거를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이어간 황재균(30·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이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등극했다.

2015시즌을 마치고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했다가 무용철의 아픔을 겪은 황재균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으로 다시 미국 문을 두들겼다.

국내 구단들의 거액 제안을 모두 뿌리치고 샌프란시스코와 스포팅 계약을 맺은 황재균은 시즌 개막 이후 3개월 동안 마이네리기에만 머물렀다.

메이저리그 입성의 길이 보이지 않은 황재균은 결국 6월27일 계약 조항에 포함된 '옵트아웃' 조항을 실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샌프란시스코는 황재균을 불잡기 위해 하루 뒤인 6월28일 빅리그로 콜업 시키겠다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기회를 잡은 황재균은 6월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AT&T 파크에서 벌어진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렀고 데뷔 첫 안타를 결승 솔로포로 장식하며 대반전을 이끌었다.

▲무용철 이름 딴 FA 거액 제안도 거절

황재균은 2015시즌을 마친 뒤에도 메이저리그에 도전장을 던졌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서였다. 하지만 그에게 입찰액을 써낸 구단은 없었다.

황재균은 주변의 비웃음을 샀다.

앞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 박병호(미네소타 트윈스), 김현수(볼티모어 오리올스)와 비교해 황재균이 국내 무대에서 남긴 눈에 띄는 기록은 없었다. 이들과 비교해 장타력뿐 아니라 타격의 정교함 수비에서 모두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황재균은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점을 찾아내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메이저리그 구단 스카우트들이 백스윙 궤적이 긴 것을 지적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황재균은 곧바로 타격 자세를 간결하게 수정했다.

2015년 144경기에서 53타수를 소화하는 동안 122개였던 삼진 개수는 지난해(127경기 498타수) 66개로 확 줄었다.

또 지난해 타율 0.335(498타수 167안타) 27홈런 113타점을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다. 또 외야 수비 연습을 하는 등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지난 시즌을 마치고 FA가 된 황재균은 또다시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했다.

그의 원 소속구단인 롯데 자이언츠를 비롯해 국내 구단들이 거액을 제시했지만, 이를 뿌리치고 메이저리그 도전에 나섰다.

시즌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훈련하던 황재균은 FA 협상에 진척이 없자 메이저리그 20개 구단 스카우트 앞에서 '쇼케이스'까지 펼쳤다.

샌프란시스코와 힘겹게 계약을 맺었지만, 스포팅 계약이었다.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으려면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했지만 황재균은 이를 받아들였다.

▲합당한 경쟁, 마지막 순간에 찾아온 기회

초청 선수 신분으로 스프링캠프에 참가한 황재균은 연일 맹활약을 선보였다.

시범경기 27경기에서 출전한 황재균은 타율 0.333(48타수 16안타) 5홈런 15타점 7득점으로 활약했다. 팀 동료와 코치들이 뽑는 스프링캠프 최고 신인인 '바니 뉴진트 어워드'도 황재균의 차지였다.

하지만 25인 개막 엔트리에 황재균의 이름은 없었다.

황재균은 샌프란시스코 신하 트리플A 팀인 새크라멘토 리버 캐츠 소속으로 시즌을 시작했다.

황재균은 트리플A에서 3개월 동안 68경기에서 출전, 타율 0.287(254타수 73안타) 7홈런 44타점 33득점에 출루율 0.333, 장타율 0.476으로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주전 3루수 에두아르도 누네스의 부상에도 황재균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구단은 6월25일 트리플A에서 뛰던 유망주 내야수 라이더 존스를 빅리그로 불러올리고, 또 다른 3루수 요원 코너 길라스피를 부상자명단(DL)에서 해제했다. 황재균의 메이저리그 승격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 것.

황재균은 결국 이틀 뒤인 6월27일 계약 당시 포함한 '옵트아웃' 조항을 행사할 뜻을 드러냈다. 7월 2일까지 메이저리그에 승격하지 못하면 FA 자격을 얻는 것이 '옵트아웃' 조항이다.

황재균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셈이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기회가 찾아왔다.

샌프란시스코 구단은 6월 28일 황재균을 메이저리그로 승격하겠다고 선언했다.

'배수의 진'을 친 황재균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결승 솔로포 누구보다 화려했던 데뷔전

황재균은 6월29일 꿈에 그리던 AT&T 파크에 발을 내딛었다. 브루스 보치 샌프란시스코 감독은 트리플A에서 막 올린 황재균을 5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라인업에 포함했다.

황재균의 메이저리그 데뷔 첫 안타는 세 번째 타석에서 나왔다. 데뷔 첫 안타는 다름 아닌 홈런이었다.

황재균은 3-3으로 맞선 6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콜로라도 선발 카일 프리랜드의 3구째 체인업업을 노려쳤다.



황재균(30·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이 지난달 2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AT&T 파크에서 벌어진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에서 5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 6회말 좌중월 솔로포를 때려낸 후 기뻐하고 있는 모습.

타구는 좌중간 담장을 훌쩍 넘어갔다. 팀에 리드를 이끄는 홈런이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가 5-3으로 승리하면서 황재균의 데뷔 첫 안타이자 홈런은 결승 솔로포가 됐다.

한국인 메이저리거가 데뷔전에서 홈런을 친 것은 황재균이 최초다.

황재균 이전에 가장 빨리 홈런을 신고한 것은 지난해 박병호와 지난해 시애틀 매리너스에서 활약한 이대호(롯데 자이언츠)다. 둘 모두 데뷔 3경기 만에 홈런을 때려냈다. 데뷔 3타석 만에 홈런을 신고한 황재균은 한국인 메이저리거 최소 타석 데뷔 홈런 기록도 바꿔냈다. 지난해 박병호는 7타석 만에, 이대호는 5타석 만에 첫 홈런을 뽑아냈다.

창단 135년째를 맞은 샌프란시스코 구단 역사에서 빅리그 데뷔전에 첫 안타를 홈

런으로 장식한 것은 황재균이 17번째다. 빅리그 데뷔전에서 첫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한 것은 2014년 애덤 듀발 이후 3년 만이다.

화려한 데뷔전을 치른 후 동료들의 맥주 세례를 받은 황재균은 "한 경기라도 뛰고 싶어 미국에 건너왔는데 오늘 이뤄져 기분이 좋다. 그 경기에서 결승 홈런까지 치렀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보치 감독은 "황재균이 이곳에 오기 위해 한국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두가 알고 있다. 황재균은 꿈을 이뤘고 엄청난 홈런도 때려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외신들도 황재균의 활약을 집중 조명하며 그가 배트 플립을 하던 버릇을 고친 것에 주목했다.

/김민근기자

## 현대캐피탈, 아식스코리아와 용품 협약 체결

남자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이 아식스와의 후원을 이어간다.

현대캐피탈은 11일 충남 천안의 복합베이스캠프인 캐슬 오브 스키아워커스에서 아식스코리아 김정훈 대표이사과 현대캐피탈 배구단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식스코리아와 3년간 9억원 규모의 용품후원 협약식을 진행했다.

2006년 아식스코리아와 처음 손을 잡은 현대캐피탈은 이번 협약으로 14년간 용품후원 관계를 이어가게 됐다. 스포츠브랜드 아식스코리아는 현대캐피탈이 최상의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도록 배구화복, 유니폼 등 선수들에게 필요한 모든 훈련 용품을 제공한다.

아식스코리아 김정훈 대표이사는 "현대캐피탈 스카우터스 배구단과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현대캐피탈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선보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 나달, Wimbledon 테니스대회 16강전 탈락

스탠 바브라카(32·스위스)에 이어 또 한 명의 우승 후보인 라파엘 나달(31·스페인)이 2017 Wimbledon 테니스대회에서 탈락했다.

나달은 11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Wimbledon에서 열린 대회 남자단식 16강전에서 질 윌러(34·룩셈부르크)에게 2-3(3-6 4-6 6-3 6-4 13-15)으로 패했다.

두 차례 Wimbledon 우승을 포함해 15차례나 그랜드 슬램 대회 정상을 밟았던 나달은 윌러의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조기에 대회를 마감했다.

나달은 Wimbledon에서 유독 힘을 못 쓰고 있다. 마지막 8강 진출은 6년 전이다.

아날 나달은 첫 두 세트를 맥없이 빼앗겼다. 3,4세트를 따내며 분위기를 가져오는 듯 했지만 끝내 승부를 뒤집지 못했다.

또 다른 16강전에서는 지난해 우승자인 앤디 머레이(30·영국)가 베노이트 파이레(28·프랑스)를 완파하고 8강에 안착했다.

/김민근기자

## 국내 첫 PGA 투어 '더 CJ컵@나인브릿지스' 공식 홈페이지 오픈 티켓 판매 돌입

오는 10월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정규 대회인 '더 CJ컵@나인브릿지스'가 개막 D-100을 맞아 공식 홈페이지를 일반에 공개하고 티켓 판매에 돌입했다.

'더 CJ컵@나인브릿지스'는 오는 10월19일부터 나흘 간 제주에 있는 클럽 나인브릿지에서 개최된다.

대회를 주최하는 CJ그룹은 대회 개막 100일 앞두고 11일 공식 홈페이지(www.thecjcup.com)를 통해 대회 관련 각종 정보와 소식을 제공한다.

세계 정상급 골퍼선수들이 제주에 집결하는 만큼 갤러리를 위한 티켓 판매도 'CJ몰(www.cjmall.com)'을 통해 독점으로 진행한다.

CJ관계자는 "향후 국내에서 10년간 개최될 PGA 투어 정규 시즌 대회인 만큼 홈페이지 오픈과 티켓 판매를 시작으로 남은 100일 동안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